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그 길을 따라 걷다

봉명동 성당 최잠숙 요안나

2020년 새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성지순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지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마음과는 달리 가정주부라는 직업과 직장을 병행하던 터라 좀처럼 짬을 내기가 어려웠다. 장거리 운전을 혼자서 한다는 것도 역부족이었다. 남편과 휴일이 겹치는 날 둘이서 같이 움직이기로 작정을 하고 도움을 청했다. 걱정과 달리 남편은 삼십 년 전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순순히 응해 주었다.

주말에만 쉬는 남편과 주말개념이 없이 근무하는 내가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어쩌다 쉬는 날이 맞으면 다른 일정이 겹쳐 미뤄지기도 했다. 만사를 제쳐두고 집에서 가까운 성지부터 가기로 한 순례길이 6월이 되어서야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진천 배티 성지, 음성 봉암 공소를 시작으로 보은 멩에목 성지를 순례했다. 배티나 봉암은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곳이라 친정 나들이 하듯 다녀 왔다. 멩에목 성지 또한 여행하듯 다녀왔다.

8월에 휴가를 얻어 부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이러스, 코로나 19가 위세를 떨치던 때라 휴가를 내기가 만만하지 않았다. 결혼 30주년에 성지순례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싶다며 휴가를 구걸했다. 우리 부부만 갈 것이다. 삼복더위에 성지순례를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 다니겠다. 잠은 차에서 자겠다. 대중음식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는 들리지도 않겠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2박 3일의 휴가를 얻어 냈다.

코로나 19를 가슴에 안고 8월의 폭염 속으로 차를 몰았다. 청주에서 부산까지 쉬지도 않고 달려 도착한 오륜대 성지, 대나무 숲에 이는 바람을 타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 땀 냄새를 맡은 모기들이 몸에 달라붙었다. 모기를 쫓으며, 땀을 닦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내가 가여운지 지나가던 범나비가 살랑살랑 부채질을 해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십자가의 길 끝머리 작은 호수 위에 계시는 성모님께 인사드리고 수영 장대 성지로 향했다.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돌고 돌아 올라선 수영 장대 성지, 탁 트인 언덕 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반기셨다. 깊이 고개 숙여 절하고 이곳에서 순교하신 성인들의 전구를 청했다.

광안리 푸른 파도를 뒤로하고 도착한 울산 병영 장대 순교지, 성당 왼쪽 입구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세 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글귀가 보였다. 천국 문을 들

어서듯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갈한 제대와 감실이 눈에 들어왔다. 성체조배를 하고 세 분 성인에게 전구하고 발길을 돌려 도착한 살티 공소, 박해를 피해 살만한 곳을 찾아 터를 잡은 곳이라고 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 박해의 칼날이 무서워 피해 간 곳이 울창한 숲, 맹수가 들끓는 첩첩산중이라니 산 중턱에 세워진 조그만 경당 앞에 서니 명치 끝이 아려 왔다.

그 날의 성조(聖祖)들은 가슴에 맺힌 한을 수레국화의 여린 잎에 실었나 보다. 바위 아래 힘겹게 손을 내민 수레국화가 눈물겨웠다. 진남색 찢어진 꽃잎 위로 우뚝 솟아 오른 꽃술에서 그 날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 얼비쳤다.

맹수들이 들끓는 깊은 산골, 먹거리조차 구할 길 없어 보이는 이곳이 살만한 곳이었다니 먹먹한 마음 둘 곳 없어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 오는 것은 새벽부터 달려온 땀만은 아닐게다. 살티를 내려오는 발길이 무거웠다. 더 이상의 강행군은 어려울 듯하여 석림사 아래 계곡에서 여정을 풀기로 했다.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며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앉았다. 발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에 내 마음을 실어 보내며 저녁으로 먹는 찐 계란과 우유가 목구멍을 막았다. 계곡물에 못다 씻은 마음 찌꺼기를 걸러내며 잠을 청해 본다. 차창으로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이 시리다.

이튿날 일찌감치 경주 진목정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을 받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목정 성지 성당의 십자가가 정겹다. 성체조배를 하고 마당으로 나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다. 도자기형 14처가 이채롭다. 손전화기에 14처의 사진을 담아 집으로 향했다.

부지런한 시계(時季)는 멈출 줄을 모르고 달린다. 지난해 시작한 성지순례를 완성해야 하는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마음은 바쁘나 몸이 굶뜨다. 느린 몸에 채찍을 가해 다시 달려 본다. 또 하나의 추억이 역사가 되어 쌓여 간다.

주일미사 후에 출발하여 도착한 군산 신시도다. 새만금의 샛노란 금계국이 나를 유혹한다. 연인인지 가족인지 모여드는 인파를 뒤로하고 도착한 새만금 33센터, 안내판도 안내문도 없는 새만금 33센터 주변과 신시광장을 둘러 보고 달려간 곳은 부여 도양골 교우촌이다.

손전화기 속 안내양이 나를 산속으로 이끈다. 여름날의 긴 해도 저물어 어둑어둑해 질 무렵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도착한 도양골 교우촌, 낯선 인기척에 놀란 개들이 짖어댄다. 어둠 속에서 간신히 도양골 교우촌의 흔적을 찾아내어 경배드리고, 청양 다락골까지 순례하리라던 계획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니 한밤중이다.

이튿날 새벽 오락가락하는 비속으로 차를 몰아 도착한 청양의 다락골 성지, 미사시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기로 했다. 넓지한 정원에 세워진 14처의 기도문은 자연을 훼손한 인간에게 일침을 가한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된 자연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말없이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하나만 봐도 그렇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올려다본 무명 순교자 십자가상이 발목을 잡는다.

**“주님, 제 마지막 말이 당신에게 하소서.
제 마지막 숨이 당신 사랑에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소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니 빗방울은 더 굵어졌고 바람마저 인다. 우산을 받쳐 들고 줄무덤으로 향하는 길에 향아리 모양의 또 다른 십자가의 기도길이 있다. 천천히 올라서니 『죽음』이라는 조각상과 『부활』이라는 조각상이 보인다. 죽음과 부활은 같은 맥락일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일까?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올라가는 발길에 비에 젖은 오디가, 내려오는 길에는 보리수가 익어 가고 있다.

병원 진료차 서울로 간 길에 종로 순례지 성당과 단성사 옛터를 돌아보고, 안양 수리산 교우촌과 서울 당고개 성지, 아산 남방제 성지를 끝으로 나의 성지순례 일정의 막을 내린다.

성지 곳곳에 성지 개발 후원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성지 안내문에 입안이 짹짹하다. 편하고 좋은 것에 길들여져 본래의 모습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19로 지쳐가던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짹짹한 목구멍을 달래본다.

더위와 목마름, 모기에 배탈까지 나의 성지순례 길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 옛날 신앙 성조(聖祖)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양업 신부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 보았다는 자부심으로 내 영혼에 불을 놓았다.

주님, 제 마지막 말이 당신 이름에게 하소서. 제 마지막 숨이 당신 사랑에게 하소서.